

삼양사, 저칼로리 감미료 시장 공략

Nutrinova의 아세설팜칼륨 국내 독점공급 ... 설탕 대체시장 급성장

삼양사가 독일 식품첨가물 제조기업 Nutrinova(누트리노바)와 저칼로리 감미료 아세설팜칼륨(AcesulfameK)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시장에 독점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삼양사는 “2001년 저칼로리 감미료 수크랄로스(상표명 Splenda)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선보인 데 이어 아세설팜칼륨(상표명 Sunett) 계약으로 당류 및 감미료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설팜칼륨은 설탕에 비해 약 200배의 감미도를 갖는 저칼로리 감미료로, 전세계 100여개국에서 음료, 유제품, 아이스크림, 캔디, 껌, 의약품 등 4000여개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5월 식품첨가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설탕을 대체하는 국내 저칼로리 감미료 시장은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연평균 15%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 130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2004/07/29>